

☪ 튀르키예어 (Türkçe/튀를춰)

터키, 투르크, 튀르키예 등으로 불리며 8800만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1928년 이전까지는 아랍문자로 된 Ottoman turkish script를 사용하다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를'의 투를빼 현대화 과정에서 아랍문자를 라틴알파벳으로 바꾸는 Latinization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 문자가 한번 정비되었다. 튀르키예 알파벳을 훈민정음으로 옮겨보면 부가된 IPA적 설명보다 오히려 명료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turkish-i 또는 점없는 i라고 부르는 i[w]는 정음 '—'가 되고, ī[∅/j]는 음가없음⁷⁹⁾ 또는 단어에 따라 [j]로 발음된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정음ī로 치환해보면 더 깔끔하게 설명된다. 모음나침반에서 ī는 년중 가장 낮이 짧은 동지로서 음절의 패쇄를 뜻하고, IPA 자음표에서는 glottal stop[?]으로 종성에 ī이 오면, 한글자씩 또박또박 끊어읽기가 된다. 이것을 IPA체계에서는 değil ['de.il] eğri [ej.'ri]로 점을 찍어 휴지기가 있음을 표기하는데, 정음에서는 degil [뎅일·데힐] eğri [에히리]로 표기되어 더 명쾌하다.

Aa	ㅏ	Bb	ㅂ	Cc	ㅈ	Çç	ㅊ	Dd	ㄷ	Ee	ㅔ	Ff	ㅍ	Gg	ㄱ 기
Ğğ	ሻ	Hh	ㅎ	Ii	ㅡ	İi	ㅣ	Jj	叟	Kk	ㅋ 키	Ll	ㅣ	종성	ㄹ ㄹօ
Nn	ㄴ	Oo	ㅗ	Öö [ø]	ㅗ	Pp	ㅠ	Rr [ɾ]	초성	ㄹ	종성	Ss	ㅆ	Şş	ສ
Uu	ㅜ	Üü [y]	ㅜ	Vv	ㅓ	Yy	ㅕㅛ	Zz	△	â	ㅑ	ㅣ	ㅓ [i]	û	ㅠ

C vs Ç չ չ	G vs Ģ Ղ Ղ	J vs Y յ յ	Ö vs Ü Ո Ո	S vs Ş Ս Շ
taksici [탁씨쥐] tercüman [태주만] sac [싸쥐]	sergi [쎄르기] gazete [가세테] belirgin [베՞լի՞ճին]	jimnastik [쉼나스틱] mujde [무수데] masaj [마싸쥐]	Özlem [오슬암] sörf [չվրով] şoför [շօվօր]	su [սս] simit [씨մի] istemek [이쓰테մ]
çok [촉] maç [마취] parça [파르좌]	büyüküm [부위 텁] yoğurt [요후트] dağ [닿·다 օ]	yol [율] uyuyor [우유요르] kaykay [카이카이]	müzik [무시크] iyi günler [이이 յնՆԵՐ]	akşam [악쉼] teşekkürler [테շքիլրա스]

⁷⁹⁾ ğ is usually silent and indicates a syllable break, e.g. *değil* ['de.il] (not). In final syllables after e and i, ğ = [j], e.g. *eğri* [ej.'ri] (curve). Elsewhere ğ lengthens a vowel, e.g. *bağ* ['ba:] (bond). In some dialects it is pronounced [w] [Turkish pages from omniglot.com]